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4일 앞...통준위 공식 출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논의하는 강기정 시장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17명 위원 구성...7월 1일 특별시 출범 준비 총력

강기정 시장 "막중한 책임감으로 성공 정착 최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행정안전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발족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장권한대행,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각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체결 이후 통준위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준위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4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 3명(시·도 부단체장, 행정안전부 차

핵심실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기구다. 앞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 조율을 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열린 통준위 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추진 경과, 출범 준비 상황, 통준위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준비위원회 목적·기능·운영방안 등을 담은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통준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7월 1일 전까지 운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 54일 뒤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 속으로 남고, 부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광주광역시의 마지막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인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는 주청사 위치, 특별법 조항, 야당의 필리버스터, 행정표준코드 배열 순서 등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민주주의 본산답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왔다"며 "새로운 난제와 갈등이 나타나겠지만, 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특별시 성패를 좌우할 것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또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과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기간 분야별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출범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빈기자

현대차, 상용 대표모델 3종 출시 마이티·파비스·엑시언트 상품 강화

현대차는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2027 마이티' ▲'더 뉴 2027 파비스' ▲'2027 엑시언트' 및 '더 뉴 2027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차는 국내 상용차 시장을 이

끄는 대표 라인업을 한 번에 선보여 차급을 뛰어넘는 브랜드의 일관된 혁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용 신차 라인업을 통해 모델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디자인 변경으로 엑시언트-파비스-마이티까지 이어지는 강인

한 존재감의 브랜드 정체성을 공유하는 패밀리 룩을 완성했다.

이날 선보인 상용 대표모델 3종은 국내 도로 및 운행 환경에 최적화된 내구성과 승용차 수준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됐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및 후방 시계 강화 등 현장 실사용 안전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 11년 만의 혁신, 하이테크 인테리어와 제동 안정성 확보

더 뉴 2027 마이티는 2015년 출시된 이후 약 11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마이티 고유의 개성은 부각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 7년 만의 진화, 고하중 특화 '프레스티지 맥스' 트립 신규 운영
더 뉴 2027 파비스는 2019년 출시 이후 약 7년 만에 선보이는 파비스의 부분변경 모델로, 고하중 특화 트립 신규 운영을 비롯해 더

견고하고, 더 현대적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 최상의 내구성과 최첨단 안전·편의 사양 집약

현대차는 출시 4년 만에 신차급 부분변경을 거쳐 새롭게 선보이는 '더 뉴 2027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과 연식변경 모델 '2027 엑시언트'를 함께 선보였다.

현대차의 대형 트럭 2027 엑시언트는 고객의 실사용 환경을 고려해 제동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

한 점이 특징이다.

■ 승용 수준의 커넥티비티와 실사용 안전성 강화

현대차는 이번 상용 대표모델 3종 공통으로 전면 윈드실드 글라스에 다이렉트 글레이징 공법을 적용해 차체 강성을 높이고 외부 소음 유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탁월한 정숙성을 확보했다. 또한 현대차는 상용 모델임에도 승용차 수준의 운전경험 제공을 목표로 사양을 재구성했다. /이유빈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